

동료교사·지인에 38억원 등친 ‘사기꾼 교사’

월 10% 수익 보장 미끼 가로채...4년간 돌려막기 하다 들통 교사 채용 사기 등 잇따라 광주 교육계 도덕성 해이 도마에

현직 교사가 동료 교사를 등친 사기 사건이 또 발생했다. 주식파생상품에 투자해 월 10%를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고, 금액은 무려 38억원에 달했다. 사기 당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라 믿고 투자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2014년 광주 모 고교 교사의 채용 사기, 최근 사립학교 교감의 채용사기 앞선 등 끊임이 없고 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광주 교육계의 도덕성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주식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월 10%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동료 교사와 지인들에게 38억원을 받아 가로채 혐의(사기 등)로 광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12년 10월께 지인인 A씨에게 선물옵션으로 돈을 벌어 볼 생각이 없느냐고 제안했다. “교사인데 일은 취미고, 주식투자를 하는데 매일 수천만원을 번다. 운용하는 자산만 20억원이 넘는다. 투자하면 원금은 당연히 보장되고 월 10% 수익도 보장해 주겠다”고 꼬드겼다.

김씨의 말을 믿고 A씨는 3000만원을 투자했다. A씨가 이후 4년간 투자한 금액은 5억4000만원에 이른다.

김씨의 사기행각은 동료 교사에게까지 뻗어갔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근무했던 교사 10명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들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6억원에 이르기

까지 4년간 총 38억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

김씨는 초반에는 매달 투자금의 10%를 보장해줬다. 고수의 맛을 본 피해자들은 점점 투자금을 늘렸다. 피해자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가족에게 빌린 돈을 투자했다. 은행 대출 이자는 연 10%대이지만 투자수익은 월 10%로 11배가 넘는 장사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김씨는 투자대상을 늘려 ‘돌려막기’를 했다. 새로운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일부 수익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었다.

김씨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의 답례로 고가의 전자제품, 명품, 해외여행까지 냈다. 답례품으로 받은 물건은 인터넷에서 되팔아 사용했다.

하지만 돌려막기는 한계에 부딪혔다. 일부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뤘고, 2년이 지나자 운영이 어려워졌다

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잦아졌다.

결국, 피해자들은 김씨의 사기 행각을 알아채고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투자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07년 주식투자를 시작했는데 2009년 실패하면서 2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이후 빚을 갚기 위해 사기 범행을 시작했다.

투자금 38억원은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했다. 3억원가량은 실제 주식에 투자했지만 손해를 봤다.

송기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은 동료 교사들이거나 가까운 지인들로, 김씨가 현직 교사여서 쉽게 믿은 것 같다”며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불렀다. 그 어디에도 연 120%의 수익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로타바이러스’ 유행 비상 고열·구토 동반 설사환자 급증

이달 들어 광주에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고열·구토를 동반한 설사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타바이러스는 전염 경로가 다양해 전파가 쉽고 탈수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특히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30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9.1%(186건 중 17건)의 검출률을 보이던 로타바이러스가 이달 들어 32.1% (131건 중 42건)까지 치솟는 등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 3월 (14.2%·343건 중 49건)과 비교해서도 2배 이상 증가했다.

로타바이러스는 2013년(34%) 유행한 이후 2014년과 2015년에 주춤했지만 올해 봄 환절기에 크게 유행하는 양상이다. 로타바이러스는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손, 입, 대변의 접촉으로 감염된다. 1~3일간 잠복기를 거쳐 구토, 발열, 복

통, 수양성 설사가 나타난다. 다른 설사 바이러스와 다르게 구토와 설사가 더욱 빈번하다.

영양장애와 수분부족으로 인한 탈수로 생명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많아 생후 24개월 이하 영·유아는 반드시 전문의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인 1~2월에 유행했지만 최근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함께 바이러스 활동성이 높아져 유행 시기가 2~5월까지 늦춰지고 있다.

세계질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미생물과장은 “놀이방과 어린이집 등 집단 시설에서 영·유아용품 철저히 소독하고, 특히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한다”며 “예방접종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고 당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서구선관위 사무국장 ‘부적절 술자리’ 주의 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공무원으로부터 식사와 술자리를 대접받은 광주시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백모 사무국장에 대한 내부 감사에서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백 사무국장 등 서구선관위 직원 8명은 자신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입후보 광주 서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로부터 지난달 4일 식당,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술자리를 대접받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서구는 지난 1월 한 언론사가 주관한 토크 콘서트에 임 청장이 출연하면서 직원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하도록 각 실과에 공문을 내려보내 선거법 위반 지적이 제기됐다. 서구선관위는 이에 대해 언론사 자율 행사라며 지난 1월 24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할아버지 선생님, 너무 좋아요” 30일 광주시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효령 오소도손재함마을’을 찾은 청은어린이집 아동들이 1일체험 교사로 나선 어르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최혜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화물연대 운송료 협상 타결

기아차 오늘부터 정상 운송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게리어 분회와 기아차 광주공장 완성차 운송 협력업체인 글로벌비스가 30일 운송료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파업을 벌여 온 카게리어분회 소속 화물차주 107명은 오는 31일부터 자동차 운송 업무에 복귀한다.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게리어분회는 파업 3일째인 이날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운송료 6.5% 삭감안을 토대로 한 3차 점쟁 합의안을 가결했다. 합의안은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기아차 완성차를 운송하는 화물차주로 구성된 카게리어분회 집행부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 운송업무를 맡고 있는 글로벌비스 측은 이날 오전 유가 하락에 따른 운송료 6.5% 인하, 6개월 단위로 1일 평균 유가의 변동

폭(±15% 초과)에 따른 운송료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화물차주들이 요구한 오후 5시 이후 상차적업 지원 인력 운영, 상차장 확대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등 근로조건 개선안이 포함됐다.

추가 적재 1대분(5~6대)에 대한 광주공장 출발기준 수출차 운송료는 목표항의 경우 4만3000원(100%)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펄택, 광양 등 다른 장소는 추가 적재 1대분의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카게리어분회는 유가하락에 따른 운송료 6.5% 인하를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글로벌비스 측의 요구에 반발 지난 28일 총파업에 돌입, 자동차 운송을 거부해왔다. 카게리어분회는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 하루 평균 2200여대 전량(수출 1600대, 내수 600대)을 운송하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보수나 틱을 받지 않았다면 노래방 도우미가 아니라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염호준 판사는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고 여성을 접대하게 한 혐의(음란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이모(여·5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연습장 사업자인 이씨가 술을 판매한 점은 유죄로 봤다. 그러나 도우미를 앞선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가 없었다면 노래방 도우미 아니다”

광주지법, 보수·팁 받지 않아 무죄...술 판매는 유죄

재판부는 “접대부란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궈주고, 업무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사람을 가리킨다”며 “단순히 놀러오거나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신 사람은 접대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손님 응대를 위해 소 개한 도우미가 보수를 받거나 팁을 받지 않아 도우미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형사재판에서 공소사 실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광주시 서구 자신의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여성을 소개해주고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씨는 “손님을 ‘노파라치’(노래연습장 불법행위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고발하는 사람)로 보고 감시 목적으로 여성을 들어가게 했다”며 “접대부로서 알선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사칭 식당 돌며 돈 빌려 가로채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을 사칭해 식당 등에서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의 가로챈 20대 남성이 쇠고랑.

○...30일 광양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이모(26)씨는 지난 1월부터 2월9일까지 광양시 중마동과 태인동 일대 대기업 직원들이 주로 찾는 식당에서 단골 행세를 하며 10만~40만원을 빌리는 수법으로 모두 17곳에서 300만원을 가로채 혐의.

○...이씨는 ‘오늘 저녁 단체손님을 예약하겠다. 가방을 잃어버려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는 수법으로 식당 임주들을 속였는데, 피해를 입은 식당 옆 다른 가게에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광양=박영진기자 pyi4079@

신축상가 원룸 매매 (전대정문)

전대 후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야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남향 코너자리

1층 (커피숍 입점)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 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사무실 및 오피스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겸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 경치좋음)

010-7384-7800

법률경매

(주) 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1. 동구 학동 (토 340평, 건 636평) (지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평주 시장 지하 ◆ 명수 최대규모 (볼링장, 나이트클럽, 호프집 등등 가능) ※ 대출 50%가능 (실 투자 : 3억) 감정가 17억3천 → 최저가 6억2천 	1. 북구 중흥동 (토 72평, 건 36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흥 3동주인센터 부근, 2~3m 포장도로 접 감정가 1억9천8백 → 최저가 1억3천8백 	1. 북구 연제동 (토 84평, 건 155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2층 상가, 3층 주택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5억2천
2. 광산구 운남동 (토 70평, 건186평) (근린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 상가 (마트) 2층 주택 ◆ 광주 운남동 우체국 부근 (코너자리)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2. 동구 신수동 (토 42평, 건25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평당 150만원 단층주택, 다용도실 약 6평 별도있음 감정가 6천8백만 → 최저가 6천8백만 	2.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리은행 광주지점 부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3. 서구 뽕촌동 (토 90평, 건 364평)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층~5층 총층 37개, 운전역 3분거리 ◆ 달방 수익 약 900만 가능 ◆ 대출 약 70%가능 (실투자 2억) 감정가 12억2천 → 최저가 5억5천 	토지 추천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1.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6백 → 최저가 1억8천 	
5. 광주 남구 주월동 (184평) (농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월동 2차 현대아파트 부근 (차량접근 가능) ◆ 전원 주택지 추천, 식당, 마트 추천 감정가 2억5천6백 → 최저가 1억8천 	2. 서구 세하동 (198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동마을 주변 위치, 주위는 주택 및 전답 흔해 ◆ 본건 차량 접근 가능, 3m 포장도로 접 ◆ 법정 지상권 승립 감정가 1억9천2백 → 최저가 1억9천2백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회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배우실분.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